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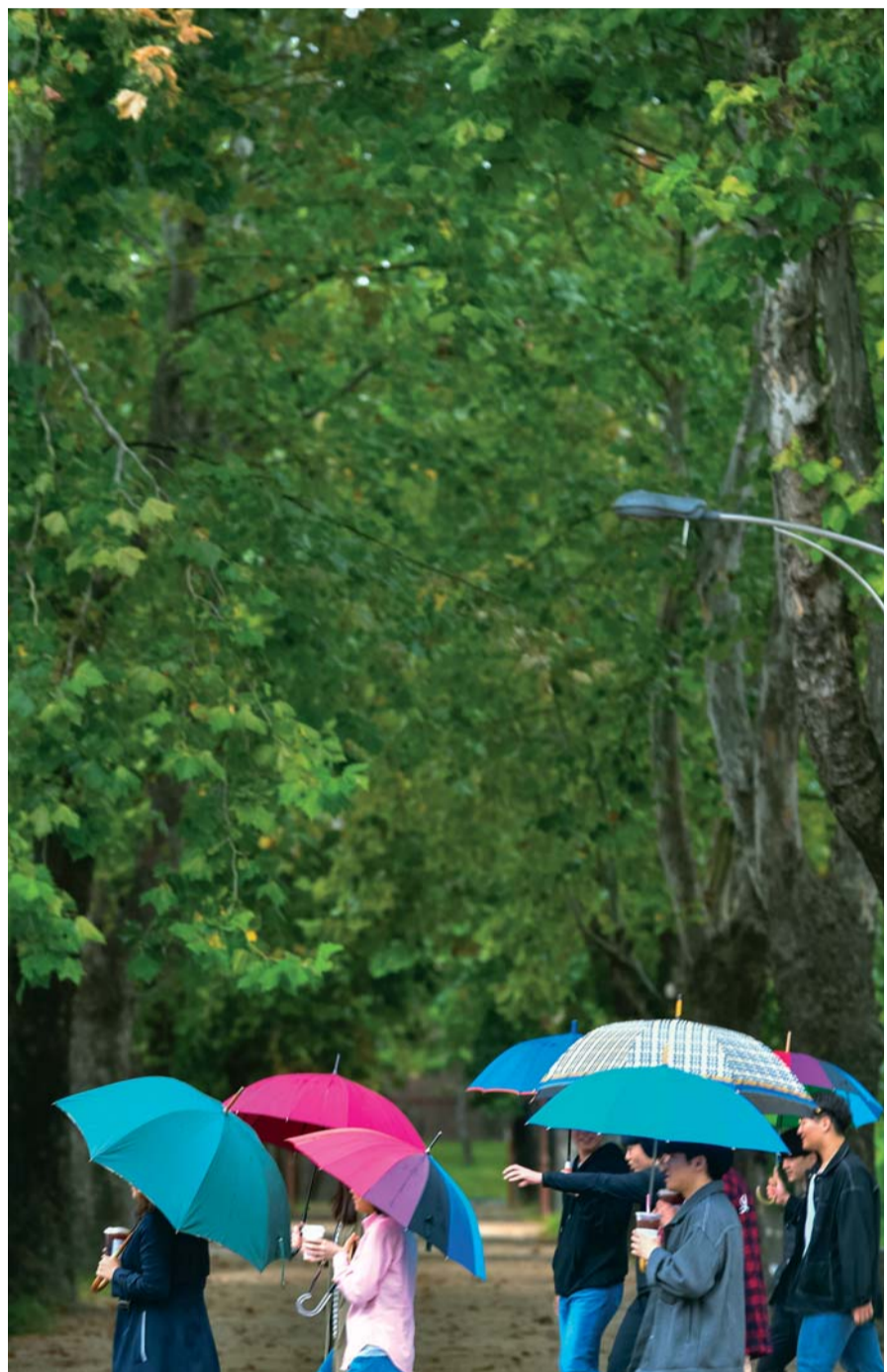
광주·전남 하루 1명꼴 보이스피싱 피해

노령인구 많아 피해규모 증가 광주 건당 피해액 전국 최고 노인 정기 방지도육 등 필요

(2013년~올해 8월)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4693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534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1826건이 발생해 3168명을 검거했고, 피해액은 256억원이었다. 광주지역 발생건수는 2013년 255건에서 2014년 387건, 지난해 205건, 올해 256건 등 매년 200건~400건 수준이지만 피해액은 2013년 20억원에서 지난해 37억원, 올해 78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출사기 피해가 1168건(피해액 109억원)이었고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 피해가 658건(14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867건이 발생, 2777명을 검거하고 피해액은 278억원에 달했다. 전남은 2013년 347건(피해액 31억원)에서 2014년 493건(48억원), 지난해 407

건(39억원), 올해 429건(5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대출사기가 2122건(144억원), 기관사칭이 745건(134억원)이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각각 하루 평균 1명이 1000만원을 피해보고 있는 셈이다. 1건당 평균 피해액은 광주가 1400여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1269만원), 대구(1018만원), 경기(1017만원), 대전(1010만원), 강원(1003만원)순이었다. 전남은 969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6만 3664건이 발생해 16만 465명이 불참했으며 피해액은 1조 7390억원(1건당 피해액 1062만원)이었다. 기관사칭 사기는 3만 9721건(7073억원), 대출사기는 12만 3943건(1조 317억원)으로, 대출사기가 기관사칭 사기보다 3.1배 많았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광주 12.9%, 전남 22.3%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지역 노인센터나 복지시설 등에서 피해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노인 전용 보이스피싱 방지 휴대전화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경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시급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발길 재촉하는 교정의 가을비
가을비가 내리는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쓴 채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급감

참여 기업·학생 갈수록 줄어 취업률 급락 원인...대책 필요

광주·전남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 수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직업계고 취업률도 떨어지면서 현장실습 감소가 취업률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2016년 1067개에서 2017년 477개로 반토막이 났다. 이어 지난해에는 301개로 급감하면서 불과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도 2079명→790명→676명으로 감소했다. 전남 역시 참여기업이 2367개→1114개→619개로 줄었고, 참여 학생수도 4529명

→3357명→1421명으로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장실습 기업과 취업 기업을 발굴하는 등 기업과 직업계고 학교를 연결해주는 전문 인력인 '취업지원관' 제도도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00명의 취업지원관 배치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439명만 채용한 상태다. 광주와 전남도 각각 25명, 73명 배치까 목표지만 아직까지 10명(40%), 22명(30%) 채용에 그치고 있다. 결국 광주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7년 76.7%에서 2018년 52.5%로 24.2%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로, 전남도 같은 기간 8.8%포인트 줄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으로 참여 기업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며 "특성고교와 종합고교의 취업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북구 19~20일 광주과학관서 '별밤캠프'

광주시 북구가 맑고 투명한 10월의 가을 밤하늘을 관측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구는 "북구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가족(3~4인 기준)을 대상으로 오는 19~20일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별밤캠프'를 무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9일에는 입소식을 시작으로 '코딩

으로 배우는 달 탐사'·'우리가족의 빛을 찾아라'·'밤하늘 별자리 관측'·'사이언스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일에는 드론아카데미·태마형 과학교실·전시장 관람·소감문 발표 등으로 캠프가 마무리 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 팝업창 및 교육일람에 접속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달뜨기 15:30
해질 18:08 달뜨기 01:03

한로(寒露)

대체로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광주	맑음	14/22	보성	맑음	12/22
목포	맑음	16/22	순천	맑음	15/24
여수	맑음	16/23	영광	맑음	14/22
나주	맑음	12/23	진도	맑음	16/22
완도	맑음	15/23	전주	맑음	13/22
구례	맑음	14/23	군산	맑음	14/22
강진	맑음	13/23	남원	맑음	13/22
해남	맑음	13/23	축산도	맑음	16/21
장성	맑음	12/2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0~2.0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 ☀️ 관심
- ☀️ 식중독
- ☀️ 보통
- ☀️ 자외선
- ☀️ 보통
- ☀️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3:56	09:50
15:44	23:02	
여수	00:09	05:41
	11:34	18:36

◇ 주간 날씨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	☀️	☀️	☀️	☀️	☀️	☀️
9/22	11/23	13/25	14/25	15/21	11/20	11/21

광주교육청 내년 영재교육대상자 1452명 선발

광주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1452명을 선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창의융합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문화회관 등 3개 직속기관 영재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분야별 영재 1452명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재들은 교사추천과 영재성·인성검사를 통해 선발하며 이 중 예술 영역과 고교 1학년 수학, 과학 영역은 내년 1, 3월 중 별도 선발할 계획이다. 2020학년도에는 영재교육 개편 방향

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으로 3개 직속기관 부설 영재교육원으로 운영된다. 지역공동 영재학급은 폐지되거나 영재교육원에 흡수 운영된다. 선발 일정은 단위학교에서 오는 21일 관찰평가 대상자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8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11월 1~15일 단위학교 교사관찰 추천에 이어 19일 영재교육기관에 학생 추천이 이뤄지고, 영재교육 기관별로 12월 7일 이후 영재성 검사와 인성검사가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열차 기관사 운행중 교체 증가...안전 대책 세워야

최근 열차 운행중 심신이상에 의한 기관사 긴급교체가 늘면서 1명만 배치한 기관사를 2인으로 늘리는 등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열차 운행 도중 긴급 교체 기관사를 교체한 사례는 올해 6건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사 긴급교체 사유는 손발 마비, 두

통, 호흡곤란, 복통, 공황장애 증세, 혈압 상승 등이었다. 현재 KTX·ITX-새마을·새마을·누리로 열차는 전면, 무궁화 열차는 278편 중 189편이 1인 승무다. KTX 기관사 연령대는 50대가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00명, 60세 이상이 43명이었다. 일반 열차도 50대(1174명)가 전체(2349명)의 절반에 달했고 60세 이상도 23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전국 판매점 및 가맹점 모집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 절삭유 교체 X
- ✂️ 미세 칩 제거
- ✂️ 연/절삭유 부패방지
- ✂️ 슬러지 악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광주공장영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 TEL : (062) 953 - 2995
▶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TEL : (02) 209 - 6400 ~ 3